

색에 관해서

이세준 작가의 글

내가 사용하는 색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딱히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림으로 누군가에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편도 아니니 미필적 고의라고 해도 할 말은 없다.

내가 그리는 색은 왜 어떤 이들에게 불편할까? 누군가는 너무 인위적이어서 그렇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 아마도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게 아닐까? 학부시절 교수님이 말씀해주셨던 잘 그린 그림은 1.표현 대상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고, 2.공간감[3차원적 환영_illusion]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3.전체의 화면이 고르고 안정적이며, 4.주제가 명확히 드러나고 5.밀도와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고 했다.

적어놓고 보니 내가 추구하는 그림은 교수님의 가르침과 거의 정반대의 요소로 이루어진 것 같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나는 화면이 비균질적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화면의 밀도와 재현의 정도, 물감의 두께와 붓질의 크기, 채도와 명도의 폭이 보다 크기를 원한다. 나는 그림 속에서 공간감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색은 자연스럽게 못하길 기대한다. 주제는 감추어지길 바라고, 의미의 깊이는 들쭉날쭉하며, 때로는 이미지도 물질도 아닌 중간의 모호한 것으로 남길 원한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고 묻는다면, 사실 그것이 내가 본 세계라고. 난 오직 내가 보고 느낀 것만을 그려왔다고 말하고 싶다.

실체와 어긋나있는 색들은 외롭게 비명을 지르고 있다. 화음이 맞지 않는 악기처럼 악을 쓴다. 듣는 이들은 모두 귀를 막고 괴로워한다. [2019]